

1. 교수님의 약력 및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항공공학과 학석사, 미시간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Research Associate**로 근무한 후, 1999년부터 경상대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미항공우주학회 **Associate Fellow**, **CiCP** 등 국제학술지 편집진, 경상대 차세대기계항공 **BK21PLUS** 사업단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2. 교수님, 이번 연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지요?

경쟁관계에 있는 익명의 논문 심사자로 부터 본 이론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 공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심사자의 공격 논리에 하나씩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충격과의 수학적 특이성의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되어 결과적으로 난관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도움과 응원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비가역 열역학 세계적 전문가이신 McGill 대학의 유병찬 명예교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 이외의 응원을 꼽으라면, 적지 않는 국가 연구비가 본 연구에 투입되었을 때 느꼈던 책임감이 항상 마음 가운데 응원으로 남아 있었고, 대학원생들의 **Supervisor**를 바라보는 눈빛과 더디지만 조금씩 연구 능력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무엇보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4. 이번 연구를 함께 진행해 온 연구원 및 제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곧바로 구할 수 있는 Richard Hamming의 "You and Your Research" 강연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논문 리젝트 등 힘들 때 마다 반복해서 읽곤 합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작업은 원래 고독한 과정이며, 난관을 극복하고 지식창출이라는 고귀한 활동에 미미하나마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만의 **Crown Jewel**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5. 연구원 혹은 제자들이 밝히는 '우리 교수님은요'코너

강동우: 교수님은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제게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연구자로서 늘 새로운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여 이를 풀어내는 교수님의 모습은 저에게 연구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써 귀감이 되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자강불식의 마음가짐으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구자로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마음으로 연구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Karchani: Professor Myong is very intelligent and a hard worker. He never gives up on his research and studying. He always thinks problems in different ways. He tries to share his experience with students at all times.

6. 교수님과 연구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단체사진)

